

# '81 하반기 축산관측

산란계 병아리 입추 완만한 증가추세 전망

金 龍 進

(축협중앙회조사부 경제분석과)

## 개 황

금년 하반기부터 일반경기가 서서히 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소 돼지, 닭 등 기본 가축 두수도 상반기에 비해 점차 늘어날 전망을 보이고 있어 하반기 축산업계의 경기는 대체로 6월 수준의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견된다. 3개월후의 경기를 예보하여주는 한국은행의 4월중 경기예고 지표는 3월의 0.7에서 0.8로 완만한 상승세를 계속, 하반기 경기회복 조짐을 시사해주고 있어 비교적 소득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이 큰 축산물의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급측면에서 쇠고기 공급은 수입육의 적정방출로 수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이며 돼지고기, 제란, 닭고기는 점차적인 사육두수의 증가내지는 계절적 수급조절로 수급이 균형되어 6월이후 하반기 축산물 가격은 전반적으로 6월수준에서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돼지 사육만은 번식력이 강해 과잉생산, 가격폭락의 위험성을 항시 내포하고 있어 경기변동을 예의 주시하면서 조심스럽게 사육두수를 조절해 나가도록 해야할 것이며 특히 금년말 이후에는 사육두수를 크게 늘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같은 하반기 축산경기를 품목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 1 산 란 계

(사육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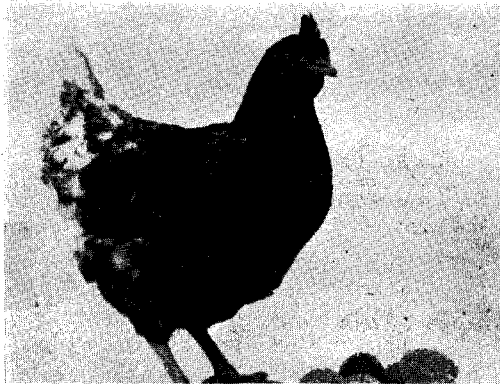
80년 하반기부터 계속된 채란업계의 불황으로 금년 3월의 산란계수수는 전에 없이 줄어든 2천 5백 80만수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수의 현격한 감소로 5월부터 계란값이 서서히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자 채란업자들은 조심스럽게 입추를 늘려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6월의 산란계 수수는 3월과 비슷한 수준이 되겠으나 9월 이후에는 50%미만의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수급및 가격전망)

일반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80년 하반기 산란계 사육수수가 예년보다 많아 채란업계의 불황이 장기화된 감이 있으나 다행히 '81년에 들어 과감한 노계도태와 입추조절로 3월의 산란계 수수가 크게 줄자 5월 중순부터 계란값이 대란10개당 400원대(산지가격)을 넘어 점차 회복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 6월 초순 현재 중·소란의 출하가 예년에 비해 크게 준 점등을 감안할때 앞으로 9월까지의 계란값은 서서히 오름세를 보이겠으며 10월이

산란계 수수와 가격전망

년 월	'79.9	12	'80.3	6	9	12	'81.3	6~9	10~12
사육수수 (천수)	26,925	30,890	27,295	30,410	31,937	29,631	25,829	완만한증가 추	완만한 증가 추
산지가격 (원/10개대란)	339	251	339	267	359	343	370	오름세	내림세→6월과보합세



후에는 약한 내림세를 띄겠지만 12월에도 6월 수준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격폭락의 위험성이 크므로 시세변동을 예의 주시하면서 입추의 조절을 기해야 될 것이다.

(수급및 가격전망)

6월말까지 사육수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는 있으나 여름철이 닭고기 수요의 최성기이므로 가격은 계속 상승하여 8월에는 1kg당 1,400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며 9월이후에는 하락세를 보이겠지만 12월에도 6월수준의 가격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육계가격 전망은 앞으로 북중기온과 켄터키 후라이드치킨 등 닭고기 가공 수요도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겠다.

2. 육 계

(사육전망)

육계 사육수수는 최근 소비붐을 일으키고 있는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의 수요증가와 여름철 성수기에 대비하여 6월말에는 작년 동기 수준인 2천만수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그 후에는 계절적인 수요감소에 따라 점차 줄어들어 12월에는 1천 2백 70만수가 될 것으로 예견된다. 그런데 육계는 계절식품인데다가 단기사육 출하가 가능해 과잉생산, 가

3. 돼 지

(사육두수 전망)

80년도 하반기부터 계속된 가격상승으로 하반기 돼지두수는 서서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수산부 가축통계에 의하면 지난 3월 말 돼지두수는 168만두로 작년말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 가격에 상당기간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달리 돼지 사육두수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79년의 양돈불황을 겪은 양

육계수수와 가격전망

년 월	'79.9	12	'80.3	6	9	12	'81.3	6~8	9~12
사육수수 (천수)	17,950	10,231	11,313	20,237	12,485	11,368	11,464	증가추세	감소추세
산지가격원 / kg	562	432	1,124	598	757	969	879	오름세	내림세→6월과보합세

\* 본 관측 결과는 앞으로 불특정적인 경제여건의 변화나 시책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돼지두수와 가격동향

구 분	'79.9	12	'80.3	6	9	12	'81.3	6~12월
사육두수(천두)	3,273	2,843	2,356	2,034	1,859	1,653	1,680	완만한 증가추세
돼지가격(천원/90kg)	57	41	61	75	110	136	129	6월과 약보합세

돈가들이 두수증가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연초의 사료값 인상과 연중사료가 상승을 우려, 모든 증식을 기피했던 점등에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본회가 추정하바에 의하면 연말 돼지두수는 적정수준의 230-240만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바, 연말 이후에는 두수를 크게 늘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수급및 가격전망)

후반기 돼지두수가 증가하더라도 완만한 추세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6월이후 연말까지의 돼지가격은 7-8월의 비수요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6월과 보합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수입쇠고기의 방출가격 및 물량여하에 따라서 다소의 약세가 예견되기도 한다.

4. 한 우

(사육전망)

농작업의 기계화 확대와 더불어 한우의 역우 기능이 상실되어 감에 따라 앞으로 한우사육은 육생산 목적으로 점차 전환되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60년 이후 농가호당 사육규모를 보면 60년에 호당 1.13두 이었던 것이 70년에는 1.17두, 79년에는 1.44두로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한우사육이 역우

한·일간 호당 재래우 사육규모 (단위 : 두/호)

년 도	한 국	일 본	비 고
'60	1.13	1.15	
'70	1.17	1.98	
'75	1.21	3.92	
'79	1.44	5.47	

목적에서 점차 고기생산 목적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나라와 농업 여건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로 미루어보아 고기생산 목적의 한우사육의 전업화 경향은 앞으로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한우두수는 가격조건에 따라 보다 민감한 반응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진다.

이같은 관점에서 볼때 '80년 하반기부터 한우 가격이 실질적으로 상승되었고 수입육의 적정방출로 금년말 한우두수는 79년 이후의 감소추세가 꺾이어 80년말(138만두)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으로 농수산부의 80년대 장기 축산시책대로 추진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소값은 생산비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한우두수는 84년 이후부터 서서히 증가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수급및 가격전망)

'81년도 연간 쇠고기 수요량은 한우 가격을 생산비 지지가격 수준으로 유지시킨다 하더라도 10만 3천톤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유·육우를 포함한 쇠고기 총 공급량은 약 9만 3천톤으로 추정됨에 따라 국내생산만으로는 1만여톤의 공급량이부족이 생기는바 가격안정을 위해 부족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1만여톤의 쇠고기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한우 가격은 생산비 수준은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한우 가격은 1-6월간에는 오름세가 계속되다가 후반기에는 거의 6월수준과 강보합세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변동 양상이므로 앞으로 수입육의 적정방출을 전제할 때 한우 가격은 6월 수준에서 약보합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